쇠고기 판별 장비도, 방법도 없이 원산지 단속 시작

미국산? 호주산? 단속반도 모른다

정부가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유전자 검증시스템 등 원산지 검증에 따른 제도와 장비·인력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원산지를 판정하는 유전자 검증기관이 인력·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새로운 단속 기준에 따라 3만9천960군데에 이르는 광주·전남지역 표시대상 업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우선 현행 검사법으로는 정작 한우와 수입산을 구별할 수 없다. 현재 활용중인 유전자검사로는 한우와 비(非) 한우 구별만 가능하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한우와 비 한우를 구별하는 유전자 분석은 세 차례 검증 절차를 거친다.

1단계는 소의 털 색깔을 통해 확인하는 '모색 유전자법'(한우·젖소 판별), 황색(한우) 유전자일 경우 실시되는 2단계는 계통분류(한우 추정), 3단계는 사람에 적용되는 친자 감별법과 동일한 '염기서열 분석'(한우 판정)이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는 '베라코드'(Vera code)로 전국에 2대밖에 없다. 이 장비도 비 한우 중 국내산 육우와 수입산 쇠고기는 구별할 수 없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에서는 1·2단계 검증만 할 수 있을 뿐 3단계는 상급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6개월 이상 된 수입 생우도 국내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음식점에서 멕시코산이나 뉴질랜드 산을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아예 '국내산'이라고 팔아도 딱히 꼬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전자 검사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1·2단계 검사는 일주일 가량 걸리고 비용은 6만4천원이 든다. 3단계 검사는 10일 정도 소요되며 8만2천원의 추가비용이 든다. 결국 시료 한 건당 한우와 비 한우를 구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모두 14만6천원이다.

특히 조만간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확대 단속이 이뤄지면서 시료 채취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수요의 검사를 2곳의 검사기관에서 다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 검사기관 당 하루 평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료검사 건수는 20건. 두 기관이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총 1만4천600건의 시료를 채취·판별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지역의 원산지표시제 단속대상 업소 2만여 곳을 관리하기란 역부족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직원 상당수가 유전자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긴했으나 실제 한우와 비 한우를 확정 판별할 수 있는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얘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과 신자 1천여명이 지난달 30일 밤 광주 남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가진 뒤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촛불행진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기아차·금호타이어 등 부분 파업

촛불집회 합류 예고 긴장

기아자동차 광주지부 등이 소속된 금속노조가 2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촛불집회 합류를 예고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2일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광주지역 10개 주요사업장의 조합원 1만여 명이 2~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인다.

조합원들은 같은 날 오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금남로로 행진해 촛불집회에 합류할 계획이며, 조합원 500여명 이상이 촛불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평화집회' 기조를 유지했던 집회양상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천주교 사제단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서울처럼 광주에서도 평화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5일로 예정된 촛불집회 때는 주최 측이 한나라당 당사나 광주지검으로의 행진을 예고해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이어 농민들도 전남지역 각 시·군에서 진행하던 촛불집회를 광주 금남로로 집중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주전남연맹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촛불집회를 광역단위로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목포·여수·광양·나주 등 전남지역 16개 시·군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진행하던 촛불집회를 금남로로 집중시킨다는 방안이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촛불집회를 탄압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

신정훈 나주시장 징역 5년 구형

무자격자에 보조금 지급 혐의

무자격자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피고인인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자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돈을 낭비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사업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N 화훼영농조합법인에 2004년 5월 17일과 지난해 2월 28일 2차례에 걸쳐 12억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종교계 촛불 가세 확산

천주교 정평위 시국미사 열고 참여
불교·기독교계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광주지역 종교계가 행동에 나섰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한 서울 촛불집회가 이틀째 평화롭게 끝나면서 비폭력·평화시위로의 변화 모습도 보여주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신부·이하 정평위) 소속 사제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 남동성당에서 '이명박정부의 회개와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시국미사'를 열고 금남로 촛불집회 현장까지 촛불행진을 벌였다. 정평위 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연 것은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사제단 소속 신부 30명을 비롯해 수녀, 신자 1천여명은 미사가 끝난 뒤 촛불을 들고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시국미사를 집전한 최창무 광주대교구장은 강론을 통해 "악법은 법이 아니며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최 대주교는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리보다는 경제발전과 돈 버는 일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에 대한 국민의 반성도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소속 5개 기독교단체도 2일 오후 3시 금남로 민주의종각 앞에서 '이명박 정부 회개와 재협상 촉구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광주시기독교단협의회가 쇠고기 재협상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불교환경연대 등 광주지역 불교 단체는 지난 5월 광주 동구 불교교육원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연 이후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오고 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2일 대책회의를 열고 '쇠고기 전면 재협상' '공권력을 남용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문 발표 등을 논의한다. /이은미기자 emlee@

20대 여성 분신 중태

지난달 30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 운동장 교단 뒤편에서 이모(여·27·북구 풍향동)씨가 불에 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 중이던 김모(2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당시 이씨의 주변에서는 시너 2ℓ 한 통과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 수술을 받았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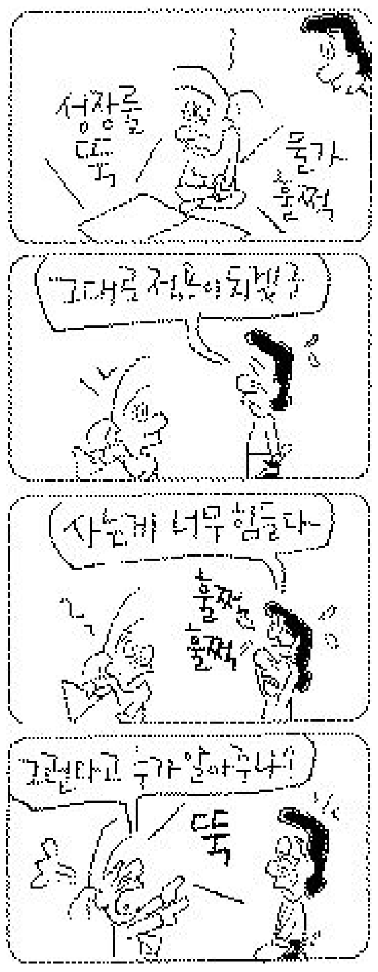
학교법인 재산 빼돌린 前 이사장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은 1일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광주 S학원 전 이사장이자 변호사인 박모(77)씨와 박씨의 사촌 조카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씨와 함께 2000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법인 소유 부동산 72필지를 매각하고 매매 대금 가운데 23억7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545〉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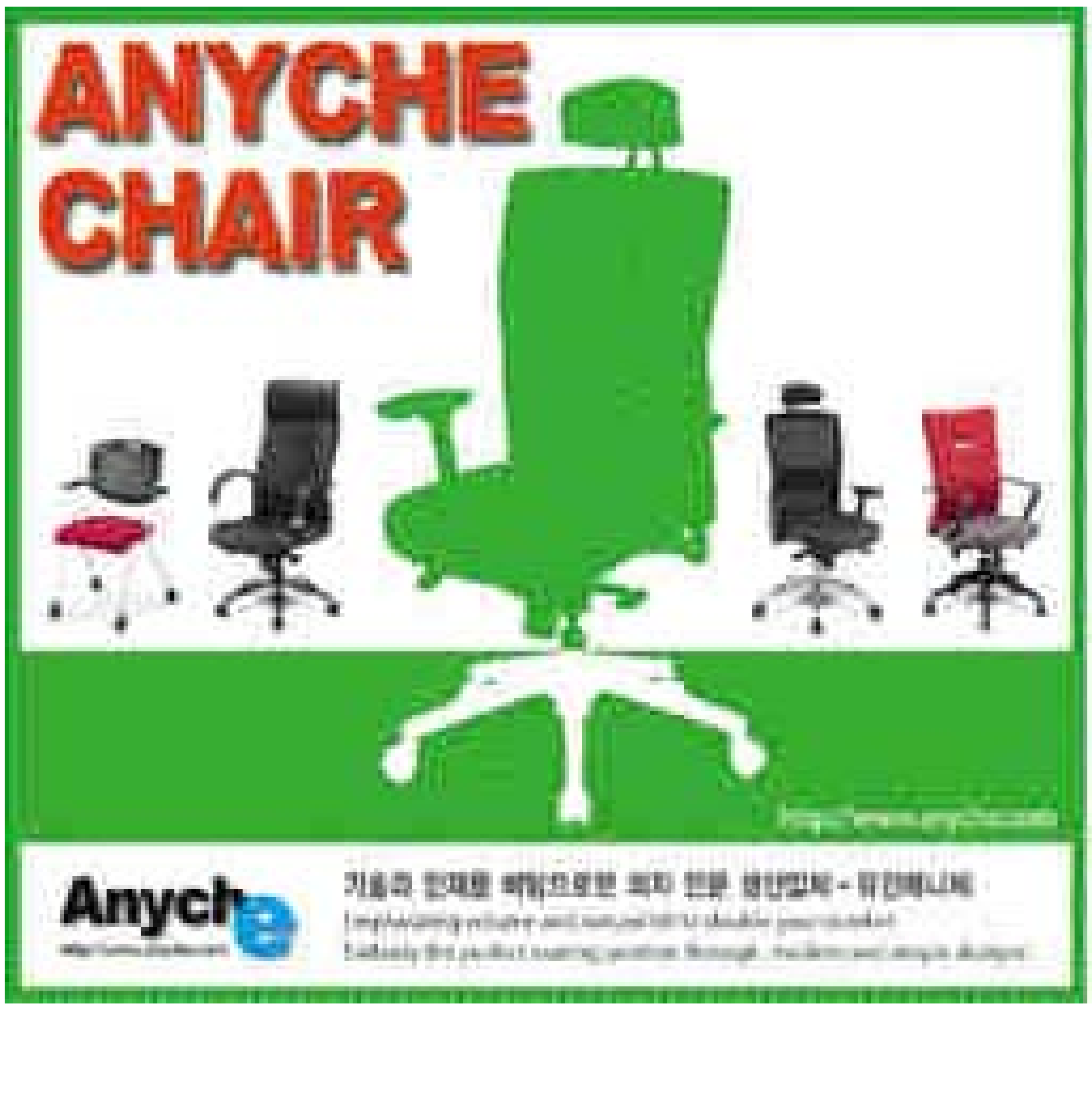


"자장면에 고기 없다" 주먹다짐

쌍나팔

○…내용물이 부실한 자장면을 둘러싸고 손님과 중국집 주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주모(39)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북구 우산동 모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주문한 자장면의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다며 주인 김모(37)씨 부부와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주씨 부부는 "가격은 올랐는데 자장면에 고기는 없고 야채만 들어 있는 등 형편없었다"고 주장했고, 김씨 부부는 "주방장이 교체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어도 화를 냈다"고 맞불.

○…경찰 관계자는 "서로 조금씩만 양보했다면 이 같은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녀까지 보는 앞에서 주먹질까지 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며 혀를 끌끌. /이종행기자 golee@